

Research Center

2015년 7월 6일

투자전략 Daily

- Strategic Insight

7월 포트폴리오 Q&A : GS리테일

- 이머징마켓 동향

중화권 급락, 지표 개선에 여타 이머징 강세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에스원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KCC 외 5개 종목

- 기업분석

풍산, 아모레퍼시픽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글 로 벌 전 략 | 박중제 ☎ 3276-6560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 T F | 강송철 ☎ 3276-6181

스몰캡전략 | 정훈석 ☎ 3276-6232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 권 분 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트 | 김기명 ☎ 3276-6206

R E I T s | 이수정 ☎ 3276-6252

true**friend** 한국투자 증권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6/26(금)	6/29(월)	6/30(화)	7/1(수)	7/2(목)	7/3(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90.26	2,060.49	2,074.20	2,097.89	2,107.33	2,104.41
	등락폭		5.20	-29.77	13.71	23.69	9.44	-2.92
	등락종목	상승(상한)	290(6)	133(7)	555(3)	605(10)	429(12)	389(7)
		하락(하한)	518(0)	702(0)	266(0)	221(0)	370(0)	420(0)
	ADR		94.21	89.64	97.28	104.17	105.94	108.84
	이격도	10 일	101.51	99.97	100.42	101.26	101.39	100.97
		20 일	101.31	99.96	100.64	101.70	102.08	101.85
	투자심리		70	70	80	80	80	70
	거래량	(백만 주)	493	504	392	472	565	414
	거래대금	(십억 원)	6,345	6,207	5,654	5,888	7,123	5,877
코스닥	코스닥지수		750.50	733.04	742.27	760.67	768.67	769.26
	등락폭		-3.16	-17.46	9.23	18.40	8.00	0.59
	등락종목	상승(상한)	290(6)	133(4)	555(4)	605(6)	429(5)	441(2)
		하락(하한)	518(0)	702(0)	266(0)	221(0)	370(0)	570(0)
	ADR		95.02	89.44	96.89	103.93	102.82	103.24
	이격도	10 일	102.65	99.89	100.66	102.57	103.04	102.58
		20 일	104.04	101.50	102.51	104.59	105.23	104.86
	투자심리		70	70	80	80	80	70
	거래량	(백만 주)	606	477	463	561	717	655
	거래대금	(십억 원)	4,932	4,093	4,154	4,421	4,912	4,855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3,852.5	1,035.0	980.6	197.5	123.5	206.8	65.9	367.719	44.4
	매도		3,750.5	1,033.7	1,073.6	185.8	120.2	316.3	91.8	329.7	54.8
	순매수		102.1	1.4	-93.1	11.7	3.4	-109.5	-25.9	38.0	-10.4
	7월 누계		25.2	120.4	-102.0	44.2	-19.7	-112.5	-3.9	4.9	-43.7
	15년 누계		309.0	8,417.3	-8,953.7	-5,304.6	-1,128.2	-5,839.9	-562.0	4,464.5	227.4
코스닥	매수		4,390.1	226.1	232.5	58.4	27.6	58.6	15.0	66.0	42.2
	매도		4,391.5	238.1	213.4	56.5	21.9	51.0	25.1	52.2	48.0
	순매수		-1.4	-12.0	19.1	1.9	5.7	7.6	-10.1	0.3	-5.7
	7월 누계		-106.5	-32.6	189.3	52.9	27.4	71.5	7.7	23.1	-50.1
	15년 누계		615.1	-336.1	889.7	-137.2	327.5	484.3	26.3	-134.5	-1,168.7

2015년 7월 포트폴리오 Q&A : GS 리테일

2015년 Target KOSPI	2,300pt
12MF PER	9.99배
12MF PBR	0.94배
Yield Gap	8.2%P

- ▶ 편의점 시장 : 식생활 효율화 및 차별화 상품으로 인한 구조적 성장 국면
- ▶ 간편식 시장 및 PB 시장 : 사회적 트렌드에 부응한 성장세
- ▶ 프랜차이즈로서의 편의점 : 제품 차별화로 인한 점포 수 확보

■ 2015년 7월 포트폴리오 Q&A : GS리테일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박소연/송승연입니다. 이번 달 포트폴리오 Q&A에서는 ‘GS리테일’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편의점 소매판매액은 전월대비 33% 증가해, 7~8% 수준의 기타 채널 판매액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메르스 확산으로 유통업 전반이 부진한 가운데, 계절적 성수기를 맞은 편의점 소매판매액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도 편의점업은 최근 식생활의 효율화 트렌드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점포당 매출 증가와 신규 출점 확대에 따른 성장 기대감도 존재해 투자 대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종에 대한 의문 사항을 풀어간다는 관점에서 이번 포트폴리오 Q&A는 유통 담당 애널리스트인 여영상 연구위원님과과의 대담 형식으로 풀어보았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 1] GS리테일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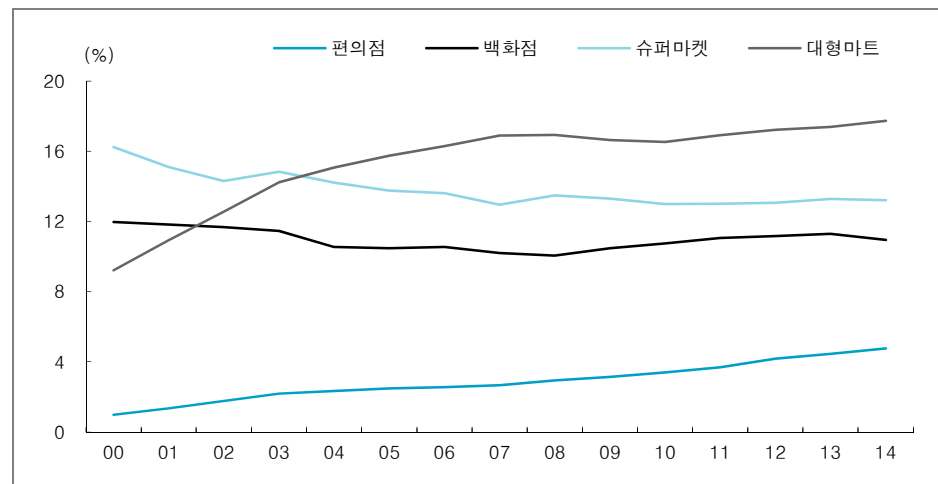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Q1> (박소연) 먼저 편의점 시장 전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6월 29일자로 발간한 업종 레포트에서 언급하셨듯이 우리나라 편의점 시장의 성장세는 소매시장 내 유통 채널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업체간 공격적 출점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이미 편의점 시장이 발달해 있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인구 당 편의점 점포 수도 앞질렀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한국의 편의점 시장의 성장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여부입니다. 2011~12년에는 주요 3사가 각 1,000여 개의 점포를 늘렸는데, 2014년에는 위드미의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 점포수 순증이 1,250여개에 그쳤습니다. 올해 주요 3사의 연간 출점 수 계획도 각 500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결국 외형성장의 둔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림 2] 국내 소매시장 내 유통채널별 매출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구조적 식사 수요 증가에
힘입은 편의점 시장의
2차 성장 진입

A1> (여영상) 우리는 편의점 시장이 구조적 식사 수요 증가에 힘입어 2차 성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과거 2012년까지 국내 편의점 시장은 출점 중심의 성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업체간 공격적 출점 경쟁으로 점포수는 급증했지만, 점포당 매출액이 감소해 편의점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가 타당했던 시기입니다.

이에 각 사는 2013년과 14년에 점포 확대를 자제하는 한편 점포당 매출액 개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편의점 시장은 도시락, 패스트 푸드, 디저트 등 MD 확대로 상품 차별화가 본격화되는 2차 성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식품 차별화를 바탕으로 점포당 매출액 증가가 신규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구조적 성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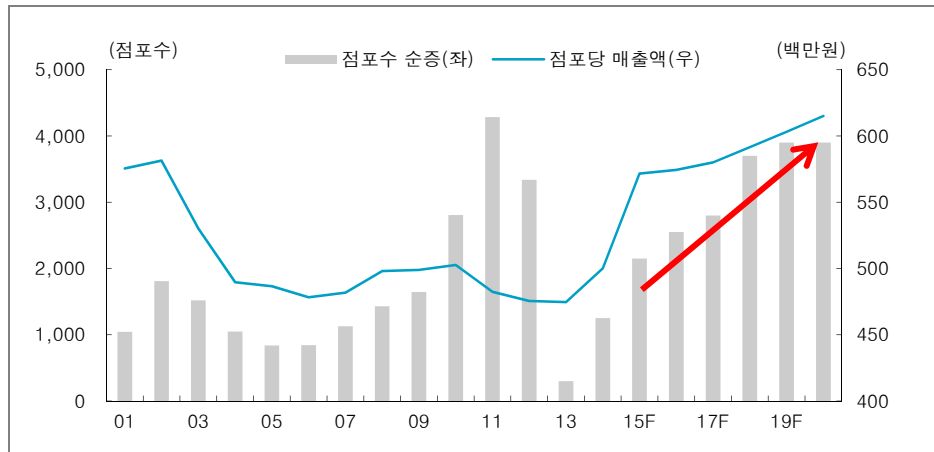
앞서 언급하신대로, 인구 대비 편의점 수는 이미 2010년에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편의점 시장에서는 점포당 매출액을 가장 주목해야 합니다. 점포당 매출액의 질적 성장이 지속된다면 신규출점 확대도 활발해 집니다. 신규출점 가능지역은 많아지고 매출부담이 해소되면, 폐점수는 자연스럽게 줄기 때문입니다.

전체 소매판매 시장의 9% 수준으로 성장한 일본의 편의점 시장이 가장 많은 점포 순증을 경험한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12년입니다. 2000년 이후 평균 800개 수준이던 점포 순증이 최근 3년 연평균 3,000개 이상으로 확대된 점은 질적 성장이 뒷받침되는 한 점포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한적임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개선 여지가 큰 국내 편의점의 점포당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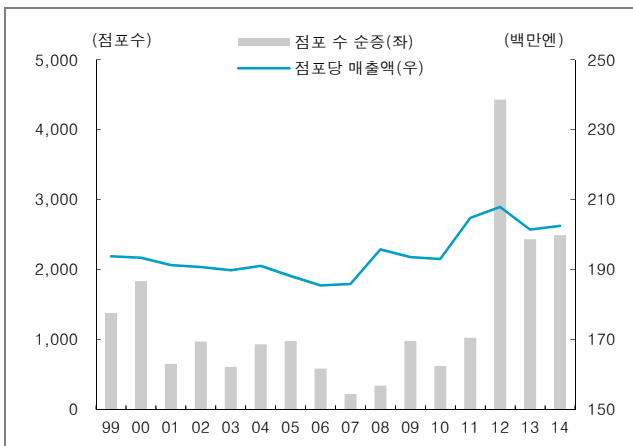
한편, 국내 편의점업체들의 점포당 매출액은 개선의 여지가 큼니다. 일일배달식품과 패스트푸드 비중이 30~40% 수준인 일본 편의점 상위 3사의 점포당 매출액 평균은 GS리테일의 4배 이상이며, 역시 식사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대만 상위 2사도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내 편의점이 기존의 저관여형 소비 품목인 담배, NB¹ 음료에서 도시락, 패스트푸드, 디저트, 커피 등으로 수요범위를 확대하는 2차 성장기에 진입함에 따라 일본, 대만과 같이 점포당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림 3] 점포당 매출액 증가와 신규점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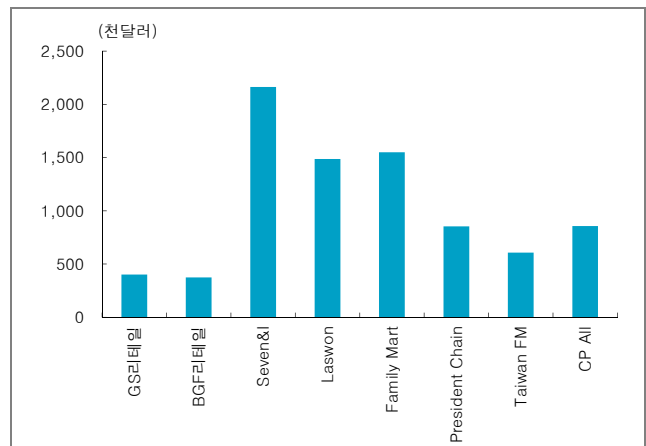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편의점협회,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일본 편의점 점포수 순증 추이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5] 글로벌 편의점업체 점포당 매출액 비교



주: 2014년 실적 기준(일본 3사 2015년 2월 결산 회계연도 기준)
자료: 각사, 한국투자증권

¹ NB(National Brand) : 기존 제조업체 브랜드로 전국 유통시장에 차별없이 판매할 의도로 만들어진 상품

최근 급성장 중인
간편식 시장에서의
GS 리테일의 차별화 방향성

Q2> (박소연) HMR(Home Meal Replacement : 가정간편식) 및 PB 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간편식 시장은 1인 가구 증가, 여성의 경제참여활동 증가 등의 사회적 트렌드에 부응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편의점이 발달한 일본의 경우 저가형 음식점 체인에 대한 수요의 상당 부분을 편의점 음식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손이나 세븐일레븐, 훼밀리마트 등 주요 편의점 업체는 자사 PB로 도시락이나 커피 등 각종 식품을 출시해왔고, 최근에는 GS25, CU, 세븐일레븐 등 국내 편의점 역시 자체 브랜드 식품 라인업을 확충하고 있는 추세인 듯 합니다. 결국 이러한 자체 브랜드를 건 경쟁에서 얼마나 우위를 확보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GS리테일의 경우 ‘김혜자도시락’ 등으로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고, 간편식은 아니지만 망고빙수나 각종 과자류를 필두로 한 PB 상품 역시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 식품군 확대에 있어서 GS리테일의 차별화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연구 개발 및 설비 증설로
인한 안정적 Capa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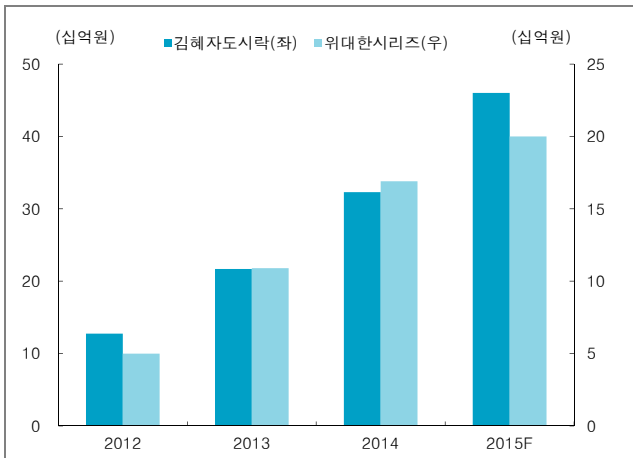
A2> (여영상) GS리테일은 상품개발력 강화에 주력하며 식사공간으로의 편의점 변화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간편식을 포함한 모든 음식료 상품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결국 ‘맛’입니다. 모든 편의점 업체들이 제공하는 간편식은 가정식, 외식 대비 맛과 신선도 측면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GS리테일의 식품연구소가 호텔세프 출신 연구원을 영입하고, 자회사인 후레쉬서브를 통해 간편식 제조 과정을 직접 통제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GS리테일은 연내 중부지역에 후레쉬서브의 공장을 추가 증설할 계획으로 향후 안정적 Capa 확보 및 공급마효율화에 따른 상품경쟁력 개선이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GS리테일은 ‘양’으로 편의점 식품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맛’은 주관적이고 비가시적 가치로, 편의점 음식의 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은 중장기 차원에서 진행되는 더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차별화 초기에 있어, 가시적이고 비교가능한 가치인 ‘양’으로 차별화 하는 전략이 좀더 쉽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국내 NB 식품료 상품이 부실한 양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과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김혜자도시락, 위대한시리즈부터 최근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망고빙수, 딸기샌드위치까지 GS리테일의 식품이 소비자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푸짐함’, 즉 가격대비효능입니다.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편의점 도시락에 대한 인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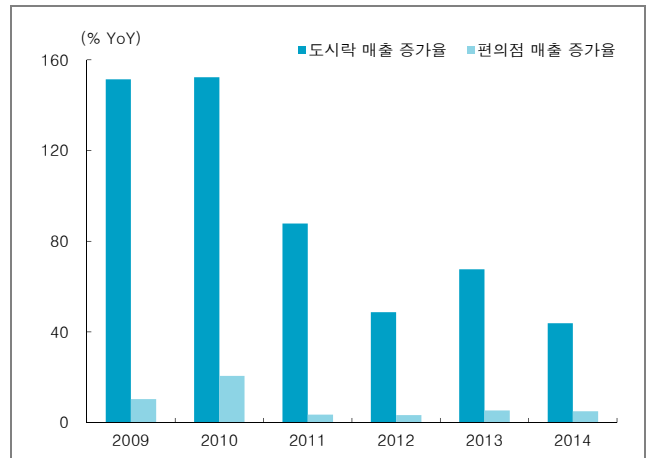
한편, GS리테일은 상품 마케팅에서도 차별화된 전략적 강점을 보여 줍니다. 경쟁사들의 기존 스타마케팅이 ‘식사’와는 다소 무관한 인기를 도용하는데 그쳤다면, 김혜자도시락의 ‘어머니의 정성’, 개그맨 김준현을 내세운 위대한시리즈의 ‘양’, 연예인 세프로서 홍석천도시락의 ‘퓨전식’ 등 GS리테일의 마케팅전략은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있게 짜여 집니다. 특히, 김혜자도시락은 온라인상에 고품질 간편식을 대표하는 각종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2014년 매출이 전년대비 50% 가까이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편의점 도시락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개선시킨 바 있습니다.

[그림 6] 김해자도시락/위대한시리즈 연간 판매 추이



자료: GS리테일, 한국투자증권

[그림 7] GS25 도시락 매출 증가율 추이



자료: GS리테일, 한국투자증권

Q3> (박소연) 다음은 프랜차이즈 차별화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말 기준으로 GS리테일은 가맹 점포 당 매출 등으로 따져보았을 때 국내 1위입니다. 통상적으로 편의점 가맹계약이 5년마다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말을 끝으로 재계약이 완료되는 지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계약 만료 후 GS리테일, 세븐일레븐, 씨유 등 국내 대형 경쟁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특히 후발주자인 신세계 위드미의 경우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민감한 수익배분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기존 사업자의 점포 수 확보에 있어 더욱 큰 리스크로 보여집니다. 이를 타개할 프랜차이즈로서의 GS리테일만의 전략이나 장점이 있을까요?

A3> (여영상) GS리테일의 기존 점포 폐점률은 최근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2013년~14년 공격적 출점을 자제하는 대신 상품 차별화 및 프랜차이즈 관리 등 내실에 집중했고, 편의점업황의 호조로 점포당 매출액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는 GS리테일은 식품군 분야의 차별화로 상대 우위의 프랜차이즈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전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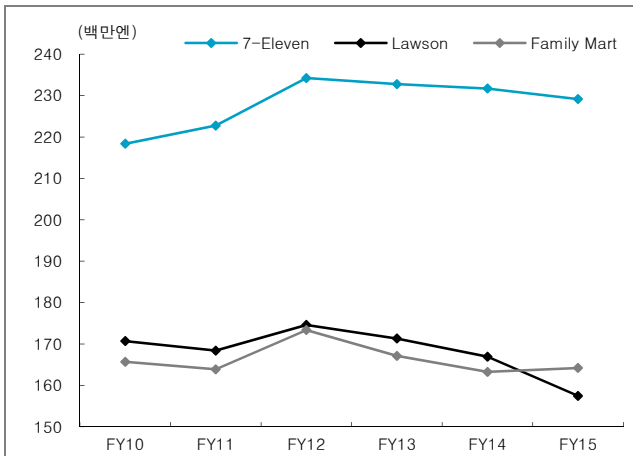
브랜드 별 점포당 매출의
관건은 수익배분 조건 보다
상품 차별화 여부

과거에는 유사한 규모의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이에서 가맹점주가 수익배분 조건보다 크게 차별점을 체감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위드미는 가장 민감한 조건을 건드리며 공격적 점포 ‘쟁탈’ 전략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편식 분야의 상품 차별화로 브랜드 사이의 점포당 매출액 차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NB상품이 지배하는 편의점은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밥을 먹기 위해서라면 달라집니다. 먹고 싶은 특정 편의점의 도시락을 사기 위해 발품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별화의 경쟁력은 고객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GS리테일은 기존 및 잠재 가맹고객에게 앞서 2번에서 설명드린 편의점 식사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점포 수를 안정적으로 증가시킬 전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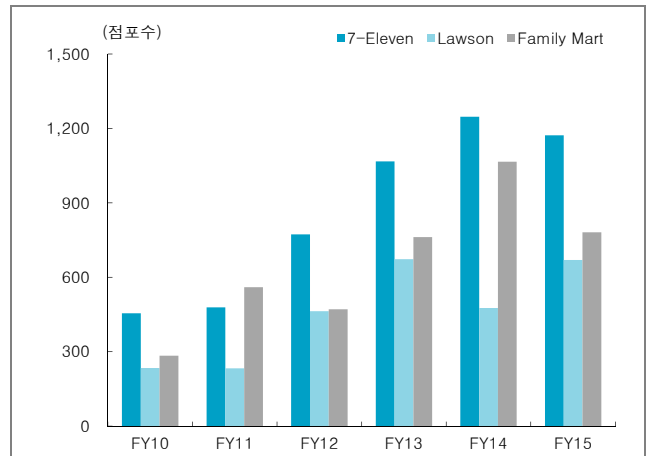
일본의 경우에도 식품 차별화로 점포당 매출액이 늘어난 업체의 점포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세븐일레븐의 일배식품 및 패스트푸드 매출비중은 최근 회계연도 기준 42.5%로, Lawson(36.5%), Family Mart(33.4%)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3사간 점포당 매출액 차이로, 그리고 점포수 순증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세븐일레븐의 점포수 기준 시장점유율은 5년간 3.7% 상승한 33.4%를 차지하며, 2위업체인 Lawson과의 격차 역시 7%에서 1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내 편의점 시장의 2차 성장 수혜 역시 상품 차별화에 성공한 상위업체에게 집중될 전망입니다.

[그림 8] 일본 주요 3사 점포당 매출액 추이



자료: 각사, 한국투자증권

[그림 9] 일본 주요 3사 점포수 순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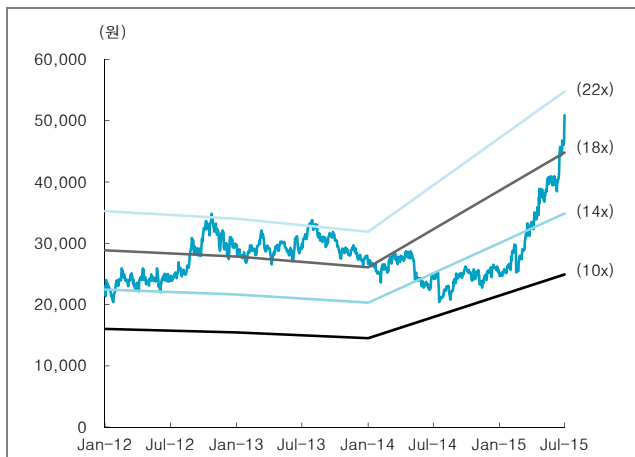
자료: 각사, 한국투자증권

Q4> (박소연)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GS리테일의 12개월 선행 PER은 약 20배로, BGF 리테일이나 일본의 훼미리마트, 로손 등의 경쟁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롯데쇼핑과 이마트에 비해선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배경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4> (여영상) 유통업 내 편의점 시장의 상대우위의 성장성은 순수 편의점 업체일수록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게 합니다. 편의점 매출액 규모가 더 큰 GS리테일의 PER은 순수 편의점업체인 BGF리테일 대비 평균 15% 할인받고 있습니다. 편의점 비중이 낮은 롯데쇼핑과 이마트는 물론, 유통업 전반과 밸류에이션 비교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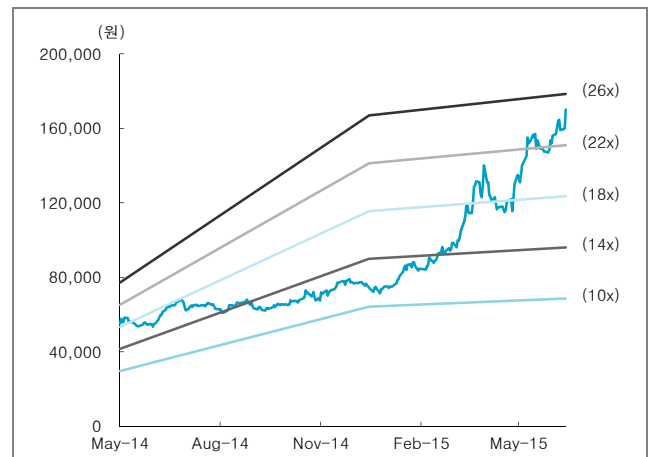
아시아 편의점 업체와 비교해 보면 현재 GS리테일의 밸류에이션은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GS리테일에 대한 우리의 목표 PER은 과거 고점 대비 40% 프리미엄을 반영한 26.5배로, 이는 백화점, 마트 등을 복수의 유통업체를 함께 영위하는 업체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이나, 순수 편의점 업체 대비 여전히 성장여력을 가집니다. 영업이익 기준 편의점 비중이 90%를 넘는 일본, 대만 Family Mart와 Lawson 3사의 평균 PER은 27.3배로 Lawson이 2014년 선보인 신규 포맷의 수익성 악화로 최근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보수적 수치로 판단됩니다.

[그림 10] GS리테일 PER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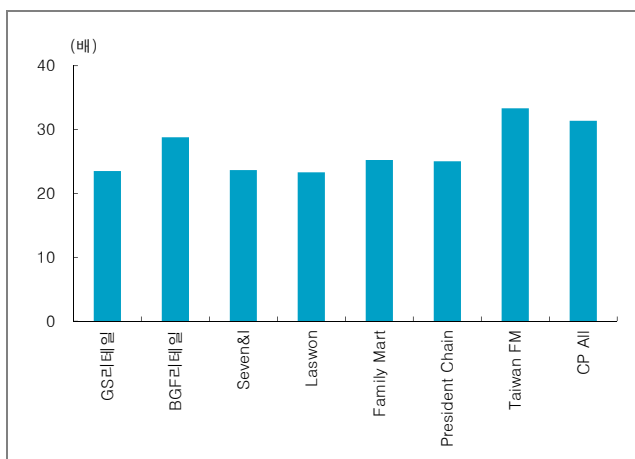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BGF리테일 PER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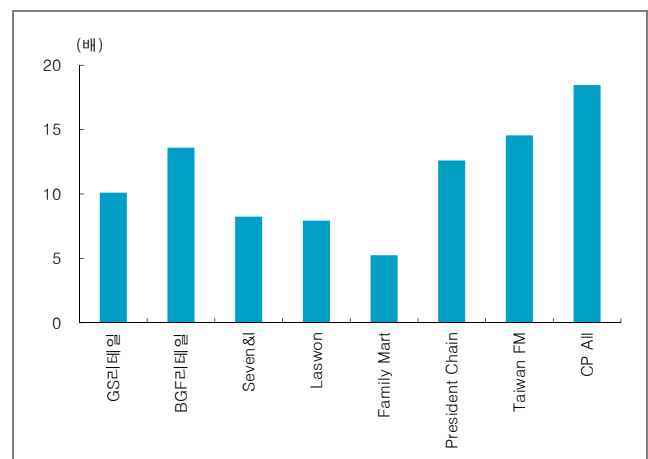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글로벌 편의점 업체 PER 비교



주: 2015년 7월 3일 기준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13] 글로벌 편의점 업체 EV/EBITDA 비교



주: 2015년 7월 3일 기준
자료: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1 : 전주 동향 및 기업실적 추정치 변경

코스피는 전주말 대비 0.68% 상승했다. 주초 그리스-채권단 협의 실패로 급락 출발한 코스피는 분기말 윈도우 트레이딩 효과와 외인의 순매수세 전환으로 1개월만에 2,100pt를 상회했다. 코스닥 역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형주와 제약주가 강세를 보이며 2.5% 상승하며 7년 6개월 내 고점을 경신했다.

신약 개발 모멘텀 등으로 코오롱생명과학(+36.0%), LG생명과학(+18.6%) 등 의약품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BGF리테일(+16.4%), GS리테일(+16.2%)은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에 강세를 이어갔다. 또한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매출 부진 우려를 겪으며 하락했던 화장품주들 역시 반등했다.

반면 월 초 발표된 6월 해외 자동차 판매 부진 소식에 현대글로비스(-12.2%), 현대위아(-11.1%) 등 현대차 계열사가 약세를 보였고, 최근 중국 증시 급락 및 그리스 관련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확산되며 삼성증권(-5.1%), 키움증권(-4.4%) 등 증권주 역시 약세를 보였다.

지난 주에는 조선, 화학 등의 업종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절된 가운데, 유틸리티, IT 업종은 하향 조정됐다.

〈표〉 업종별 주간 EPS 변화율 및 등락률 변화

Name	수익률 (%)			12MF EPS CHANGE (%)		12MF Valuation (X)	
	1W	1M	YTD	1W	1M	PER	PBR
에너지	-3.41	2.95	32.61	1.49	6.30	9.06	0.80
소재	1.05	3.69	21.68	1.82	2.08	12.20	0.85
화학	2.12	8.28	52.71	3.19	4.88	13.26	1.18
금속 및 광물	0.28	6.32	27.91	2.94	3.46	13.96	1.53
산업재	1.22	0.46	9.58	2.16	-0.93	17.26	1.10
자본재	1.96	2.03	14.64	2.85	0.56	17.88	1.05
건설	1.43	3.46	18.13	1.85	0.48	13.47	0.82
조선	2.45	-4.42	-4.03	12.79	4.01	21.13	0.60
상업서비스	-0.31	-1.32	12.27	1.84	2.66	18.09	2.59
운송	-2.93	-8.25	-15.77	-1.10	-8.21	14.06	1.40
경기소비재	1.24	3.50	7.53	-0.05	-1.28	9.62	1.03
자동차/부품	-1.73	-1.22	-16.84	-0.46	-2.12	5.45	0.62
내구소비재/의류	3.94	11.78	57.76	1.26	0.94	28.18	3.80
소비자 서비스	6.10	3.64	32.94	0.40	0.11	19.80	3.36
미디어	0.78	2.26	32.31	0.73	0.24	18.66	1.69
유통	3.17	4.18	22.47	1.18	1.66	14.03	0.86
필수소비재	1.45	3.59	32.50	0.88	1.49	20.58	2.05
음식료/담배	0.90	4.16	34.96	0.91	1.49	20.15	1.86
생활용품	4.80	0.20	25.08	0.88	1.57	23.91	5.28
의료	11.91	39.61	149.82	0.74	0.42	55.97	4.48
제약/바이오	11.94	39.74	150.48	0.74	0.42	55.97	4.48
금융	-2.05	-0.98	3.32	0.67	0.67	10.09	0.66
은행	-2.50	-4.55	-4.88	0.37	-0.16	7.73	0.47
기타금융	-2.49	-0.38	19.39	-0.31	-0.45	10.33	0.69
증권	-3.45	0.26	37.17	0.13	0.40	12.31	0.98
보험	-1.01	4.66	2.66	1.50	2.36	12.94	0.91
IT	-0.95	-3.34	-5.78	-1.98	-5.97	9.07	1.11
소프트웨어	-1.87	-0.71	-3.70	1.25	5.81	24.03	4.00
하드웨어	-3.81	-7.58	-6.89	-0.35	-4.84	12.00	0.85
반도체	-0.43	-2.74	-5.17	-1.94	-6.26	7.61	1.00
디스플레이	-2.16	-15.47	-22.28	-3.13	-10.08	6.77	0.70
통신서비스	-1.63	-0.26	-9.59	0.17	-1.38	9.75	0.97
유틸리티	3.29	1.56	9.21	-5.10	-4.64	5.61	0.54

주 : 수익률은 전 주 마지막 거래일, 추정치는 그 직전일 증가 기준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2 : 주간 글로벌 업종별 등락을 상위/하위

지난 주 Bloomberg World Index 업종 대부분이 하락한 가운데 호텔/카지노(+1.8%)만 유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트럭&리스(-0.1%), 가정용품(-0.5%), REIT(-0.6%), 석유&가스(-0.7%) 업종은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제한됐다. 반면 조선(-20.3%), 대체에너지(-10.8%), 석탄(-10.4%), 섬유(-7.6%), 철강(-7.2%) 업종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중국 정부의 반부패 기조 등으로 인해 급락했던 호텔/카지노 업종이 지난 주에는 유일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업종 내에서 호텔신라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최근 이 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중국을 방문으로 유우커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현대산업개발과 공동 추진한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모멘텀의 작용으로 상승했다. 또한 중국의 완화된 여행법과 6월 마카오 카지노 수입이 예상보다 선방하면서 최근 약세를 보였던 마카오 카지노 업체들이 모두 오랜만에 반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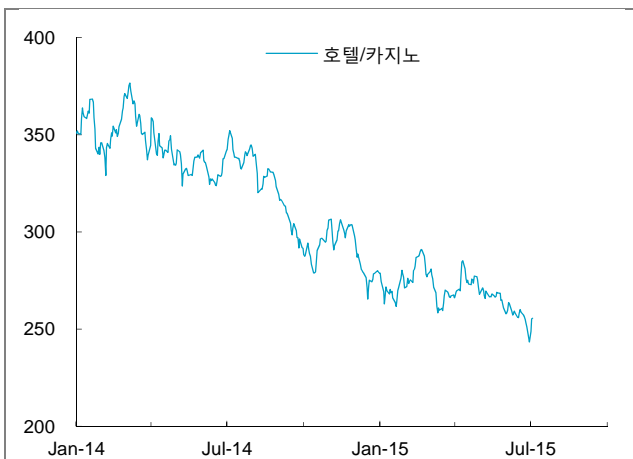
반면 조선과 석탄 업종의 약세 역시 업종 자체의 부진이 아닌, 중국 증시의 하락세에서 기인했다 볼 수 있다. 20% 이상 하락한 조선 업종의 경우 중국조선중공업과 중국 선박공업이 30% 가까이 하락한 반면, 삼성중공업의 경우 수주 성공으로 인해 오히려 10% 넘게 상승 마감했기 때문이다. 석탄 업종 역시 중국 증시의 급락과 더불어 올 상반기 대부분의 중국 석탄생산 업체들이 적자를 낸 것이라는 전망에 중국 기업 위주로 하락했다.

〈표〉 Bloomberg World Index 업종별 전주대비 수익률 상승/하락 상위

상승 상위	수익률 (%)	하락 상위	수익률 (%)
호텔/카지노	1.79	조선	-20.32
트럭 & 리스	-0.10	대체에너지	-10.82
가정용품	-0.51	석탄	-10.37
REIT	-0.57	섬유	-7.55
석유 & 가스	-0.70	철강	-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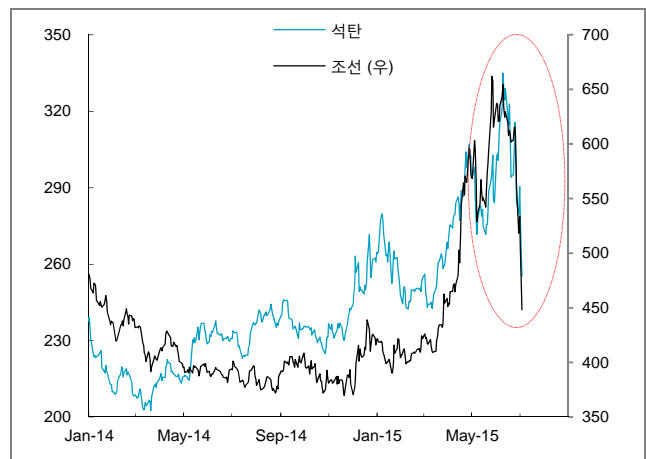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블룸버그 호텔/카지노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블룸버그 석탄, 조선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3 : 주간 글로벌 주식형, 채권형 펀드 유출입

지난 주 신흥국(Asia ex-Japan, GEM) 주식형 펀드군에는 41.0억 달러가 순유입된 반면, 선진국(International, Pacific) 주식형 펀드군에는 4.7억 달러 순유출세가 관찰됐다. Asia ex-Japan 펀드군에서는 중국 시장이 가장 큰 순유입세를 기록했고, 한국 역시 3주 연속 순유입세를 이어갔다.

채권형 펀드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펀드군이 순유출 기조를 지속했다. 글로벌 채권 펀드군은 8주 연속 순유출세를 보였고, 신흥국과 하이일드 채권 펀드군은 각각 6주, 4주 연속 순유출세를 보였다.

〈표〉 글로벌 주식형 펀드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구분	지역	자산규모	한국비중	자금유출입		
				최근 1주	최근 4주	2015년
선진국 투자펀드	International	2,133,257	1.4%	-582.0	5,066	71,558
	Pacific	54,475	5.1%	112.7	205	2,189
신흥국 투자펀드	Asia ex-Japan	416,883	13.5%	5,597.9	-2,907	-11,319
	Global Emerging	458,037	10.3%	-1,494.6	-2,250	-6,352
	Latin America	24,431		-112.8	-567	-4,745
	Europe/Middle East/Africa	45,188		-160.1	-327	-465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표〉 글로벌 채권형 펀드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구분	지역별/시장별	자산규모	자금유출입		
			최근 1주	최근 4주	2015
전체 채권 펀드 (미국+신흥국+인터내셔널+하이일드)		3,567,399	-6,109.8	-26,047.3	104,277.8
신흥국 채권 펀드 (EM bond totals)		274,447	-220.2	-1,549.7	488.9
	－ EM 경화(\$) 채권	110,228	-172.7	-1,537.0	1,344.2
	－ EM 신흥국 통화 채권	113,912	-251.9	-899.9	-3,608.6
	－ EM Blend 통화 채권	50,307	204.5	887.3	2,753.3
인터내셔널 채권 펀드		1,133,190	-2,626.5	-14,264.2	21,706.2
하이일드형 채권 펀드		482,101	-3,529.5	-10,552.5	8,090.1
미국 채권 펀드 (US bond totals)		1,677,662	266.4	319.0	73,992.7
	－ Municipal	362,168	-760.0	-1,878.4	3,835.5
	－ Floating Rate	105,948	-256.5	-1,381.0	-4,891.8
	－ Inflation Protected	53,390	1.9	80.7	3,136.3
	－ Inter. Term Corp.	30,795	-6.1	-36.6	2,391.0
	－ Inter. Term Funds	407,408	404.0	2,456.0	34,139.9
	－ Inter. Term Gov.	28,170	161.6	468.5	2,250.9
	－ LT Bond	6,918	-0.6	-161.5	588.7
	－ LT Corp.	34,882	298.1	-338.9	5,060.2
	－ LT Gov.	14,840	131.0	-790.5	-2,238.4
	－ MBS	86,282	43.5	676.8	7,687.2
	－ ST Bond	220,322	-681.8	-227.5	-9,597.0
	－ ST Corp.	36,134	-16.9	96.8	4.3
	－ ST Gov.	36,442	751.6	571.8	-290.6
	－ Total Return	253,962	196.7	783.0	31,916.4
기타 채권 펀드 (Other bond totals)		4,420,916	-16,504.7	-46,804.0	-73,641.7
	－ MMF 채권펀드	3,550,587	-17,637.4	-49,329.7	-115,234.2
	－ Balanced Funds	870,329	1,132.7	2,525.7	41,592.5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4 : 주요 증시 일정

6(월)	7(화)	8(수)	9(목)	10(금)
유럽> 그리스 국민투표(5일) 獨> 5월 공장수주 MoM (n/a, -0.1%, 1.4%)	韓> 삼성전자 2Q 잠정실적 발표 獨> 5월 산업생산 MoM (n/a, 0.1%, 0.9%)	日> 5월 BOP 경상수지 (십억엔) (n/a, 1,563.6, 1,326.4)	韓> 금통위 금리 결정 (n/a, 1.5%, 1.5%) 美> 6월 FOMC 의사록 공개 日> 5월 기계수주 MoM (n/a, -4.9%, 3.8%) 中> 6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1.3%, 1.2%)	韓> 토니모리 상장 中> 6월 M2 통화공급 YoY (n/a, 10.9%, 10.8%) 6월 신규대출 (십억 위안) (n/a, 1,000, 900.8)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日> 5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2.2%) 中> 6월 수출 YoY (n/a, 1.0%, -2.5%) 6월 수입 YoY (n/a, -15.9%, -17.6%)	日> BOJ 통화정책회의 美> 6월 소매판매 추정 MoM (n/a, 0.3%, 1.2%) 유럽> 5월 산업생산 MoM (n/a, n/a, 0.1%) 獨> 6월 최종 소비자물가지수 (n/a, n/a, -0.1%) ZEW 서베이 예상 (n/a, n/a, 62.9)	美> 6월 광공업생산 MoM (n/a, 0.2%, -0.2%) 中> 2분기 GDP YoY (n/a, 6.8%, 7.0%) 6월 소매판매 YoY (n/a, 10.1%, 10.1%) 6월 광공업생산 YoY (n/a, n/a, 6.0%) 韓> 6월 실업률 (n/a, n/a, 3.9%)	美> 연준, 베이지북 발간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n/a, 0.2%)	美> 6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n/a, 0.3%, 0.4%) 6월 주택착공건수 MoM (n/a, 6.2%, -11.1%)

정리: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중화권 급락, 지표 개선에 여타 이머징 강세

- ▶ 상해종합지수는 투자자들의センチ먼트가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투매가 지속 출회함에 급락
- ▶ 홍콩 H지수가 그렉시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본토 증시와 동조하여 하락
- ▶ 자카르타종합지수는 내수 소비 회복 기대,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타결에 대한 전망 등에 상승
- ▶ VN지수는 은행권 건전성 개선, 은행간 금리 및 금 가격 하락 등의 호재로 연속 급등세 유지

상해종합 5.8% 급락,
대부분 업종 동반 약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5.8% 급락한 3,686.9p로 마감하며 연속 사흘간 급락장을 이어갔다. 주간 단위로는 12.1% 폭락했고 지수도 3,700선을 하회했다. 급락으로 출발한 증시는 장중 강세로 반등을 시도했었으나 바로 하락하며 낙폭을 확대해나갔다. 거래대금은 6,480억위안으로 직적일보다 크게 줄었다. 직전일 감독당국에서 지수선물 공매도를 통한 고의적인 시장조작을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고, 중앙정부의 자회사인 회금공사가 최근 4일간 A주 ETF 순매수에 나섰다. 또한 대형 증권사들이 신용거래 보증금 추가 비율을 기존의 150%에서 140%로 인하하는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추가 하락을 방어하지 못했다. 투자자들의センチ먼트가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투매가 지속 출회했다. 모든 업종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인터넷, 헬스케어, 보험 등 업종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군수, 채굴, 가전, 교통운수, 건축, 비철금속의 낙폭이 가장 컸다. 차스닥지수는 장중 급등하다가 결국 1.7%로 하락 마감했고 CSI300 지수선물도 3.2% 하락했다.

홍콩H지수 1.4% 하락,
대부분 업종 약세 마감

■ 홍콩 시장

홍콩H지수가 1.4% 하락하며 본토증시의 약세에 동조했고, 주간단위로는 6.4% 급락했다. 그렉시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본토 증시의 추가 급락이 가장 큰 악재였다. 중국 정부의 증시하락 방어 정책에도 불구하고 본토 증시들이 낙폭이 확대되며 투자심리가 악화됐다. 본토투자자들이 강구통을 통해 홍콩종목을 순매도하면서 자금유출이 가속화됐다. 대부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비아디, 해통증권, 신화보험, 중국중철 등 종목들의 낙폭이 5% 이상을 초과했다. 반면 공상은행, 시노펙, 페트로차이나 등 저평가 종목들은 1% 가까이 반등했다.

자카르타종합지수 0.8% 상승,
대부분 업종 강세

■ 인도네시아 시장

자카르타종합지수는 0.8% 상승했다. 이들 연속 강세를 유지하며 5000선에 급접했다. 내수 소비 회복 기대,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타결에 대한 전망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신규 프로젝트 발표에 건설주가 상승했고 실적 기대로 에너지주도 올랐다. 반면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은행주가 하락했다.

■ 베트남 시장

VN지수 연중 최고치 기록
대부분 업종 강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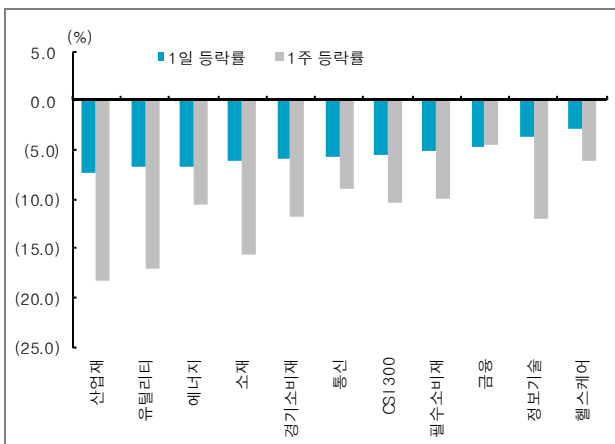
VN지수는 1.8% 추가로 상승했다.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이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권 건전성이 개선됐다는 중앙은행의 발언과 은행간 금리 및 금 가격 하락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외국인 주식보유한도 확대에 따라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매수세가 집중됐다. 은행, 에너지, 부동산, 건설 등 대부분 업종이 동반 상승했다. 11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이후 의료기기 업체 JVC도 상승했다.

주요 이머징마켓 뉴스

시장 구분	주요 내용
중국	중앙 회금공사에서 최근 4일간 대형주 ETF를 395억위안 순매수-매일경제신문 금융거래소에서 19개의 공매도 계좌를 1개월간 거래중단 - 로이터통신 6월 HSBC 서비스업 PMI 51.8로 5개월래 최저치(5월 53.5)
인도	6월 서비스 PMI 47.7 (직전치 49.6)
러시아	6월 서비스 PMI 49.5 (직전치 52.8)
브라질	6월 무역수지 45.3억달러 (직전치 27.6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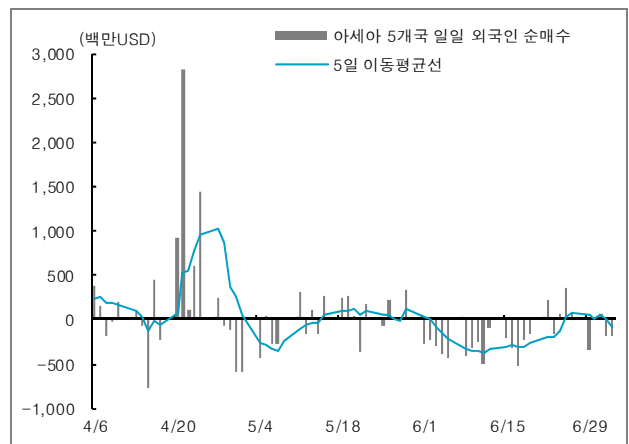
◆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그림 1] 중국 CSI300 업종별 등락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아세아 5개국*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추이



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5개국의 달러자금 흐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7/3(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3,686.92	-5.77	-12.07	-13.80	13.98
홍콩 H	12,608.98	-1.37	-6.38	-2.87	5.21
중국 차스닥	2,605.28	-1.66	-10.80	-8.86	77.02
인도 SENSEX	28,069.71	0.44	0.93	1.04	2.07
인도네시아 JCI	4,982.91	0.77	1.22	1.47	-4.67
태국 SET	1,494.69	0.21	-1.63	-0.66	-0.20
베트남 VN	616.43	1.77	5.96	3.94	12.98
MSCI 이머징마켓	971.47	-0.05	-0.93	-0.08	1.59

주: 3일 오후 6시 1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그리스 국민투표를 앞두고 관망세 속 혼조 마감

- 6월 고용동향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 출발한 미국증시는 그리스 구제협상 국민투표를 앞두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하락반전, 약보합세로 마감. 강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과 연기금 매수세와 투신을 비롯한 기관 매도세가 맞서며 등락을 거듭한 끝에 소폭 하락 마감. 770P선을 웃돌며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 매도세로 장중 하락반전 해 760P선을 위협하기도 했으나,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매수세로 하락분을 만회하며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지난 5월까지 누적 순이익이 지난해 연간 순이익을 상회하며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코리안리가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EU-GMP 제품인 결막염치료제 '올로텐'의 유럽 수출 본격화 기대감에 삼천당제약도 신고가를 기록.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의 매출 증가세에 힘입어 LG생명과학이 12% 이상 급등하며 8만원선을 돌파했으며, 중국 감소성에 1만 8000m² 규모의 3D프린팅 건축 프로젝트를 단독 수주했다는 소식에 케이디씨가 상한가를 기록. 또한,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으로 보유 지분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거래소 지분을 보유한 증권사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사우디 '알 오슬'과 수액제품 독점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JW홀딩스가 신고가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제약주의 강세가 돋보임. 반면,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였으며, 자동차 업황 부진 여파로 에스엘, 현대위아가 나란히 신저가를 기록

종목/테마	내 용
코리안리(003690) ▶14,500(+16.94%)	실적 호조 소식에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5월까지의 누적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96.4% 늘어난 1,186억원을 기록, 지난해 연간 순이익 1,167억원을 상회했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 아울러,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으로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부각됨
삼천당제약(000250) ▶13,250(+14.72)	유럽 수출 본격화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3월에 등록된 EU-GMP 제품인 결막염치료제 '올로텐'이 2년여 간의 승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유럽으로 본격 수출될 것이라는 전망에 신고가 경신 - 또한, 고수익성의 제품군 집중 판매와 지속적인 안과용제 사업부의 성장으로 올해 안정적인 외형확대 및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증권주	한국 거래소 보유 지분 가치가 부각되며 급등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가 한국거래소를 지주사 구조로 전환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을 통해 해외 거래소와 전략적 제휴 또는 M&A를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거래소 지분을 보유한 증권사들의 지분가치가 부각되며 강세. 현재 시장은 거래소의 기업가치를 2조4,000억원 정도로 평가 - KTB투자증권(030210, +7.82%), 교보증권(030610, +4.42%), 한양증권(001750, +3.09%) 등 강세
제약주	신약 개발 및 공급계약 체결 소식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5월 의약품 판매액이 증가한 가운데 해외 수출 계약 및 신약 개발 등 개별 이슈 등으로 제약주 동반 강세 - JW중외신약(067290, 상한가), 명문제약(017180, +21.45%), 삼아제약(009300, +11.51%), 삼일제약(000520, +7.91%), 동화약품(000020, +7.82%), 종근당(185750, +6.62%)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국내외 증시 동향 및 52주 신고가 종목 현황

구분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유가증권	IT	서비스업	동부	6,250	7.8	건강관리	의약품	LG생명과학	84,000	18.6
	IT	서비스업	더존비즈온	15,500	11.1	건강관리	의약품	영진약품	1,990	14.0
	금융	서비스업	NICE	21,750	14.2	건강관리	의약품	일양약품	99,900	43.7
	금융	보험업	메리츠화재	16,850	4.3	건강관리	의약품	명문제약	5,010	33.6
	금융	보험업	코리안리	14,500	16.0	건강관리	서비스업	JW홀딩스	13,300	24.3
	금융	은행	제주은행	12,500	22.0	건강관리	서비스업	한미사이언스	174,500	41.3
	소재	화학	대한화섬	130,000	11.6	건강관리	의약품	한올바이오파마	16,350	10.8
	소재	화학	동원시스템즈	98,400	17.1	건강관리	의약품	일동제약	37,650	9.1
	소재	철강금속	이구산업	1,450	7.0	건강관리	의약품	동화약품	10,750	15.0
	소재	철강금속	대한제강	8,630	1.8	건강관리	의약품	종근당바이오	40,150	38.4
	소재	철강금속	영풍	1,579,000	11.4	건강관리	의약품	현대약품	5,920	14.1
	소재	철강금속	알루코	8,550	6.3	건강관리	의약품	유유제약	18,550	12.1
	소재	화학	SK케미칼	90,200	14.0	건강관리	의약품	부광약품	38,450	13.1
	소재	철강금속	대호에이엘	2,590	28.2	건강관리	의약품	보령제약	78,500	9.8
	소재	철강금속	세아베스틸	45,650	4.8	경기소비재	서비스업	세기상사	73,800	26.2
	산업재	서비스업	일진홀딩스	8,000	23.6	경기소비재	섬유의복	신영와코루	189,000	17.0
	산업재	건설업	태영건설	6,350	2.9	경기소비재	섬유의복	에리트베이직	3,430	25.2
	산업재	건설업	현대산업	71,600	2.3	경기소비재	서비스업	한세에스24홀딩스	23,200	5.9
	산업재	건설업	한신공영	27,400	19.1	경기소비재	유통업	GS리테일	53,500	16.2
	건강관리	의약품	유한양행	297,500	3.5	경기소비재	서비스업	한국콜마홀딩스	88,400	8.1
	건강관리	의약품	삼진제약	31,200	11.4	경기소비재	섬유의복	대한방직	143,000	65.1
코스닥	IT	컴퓨터서비스	필링크	10,400	14.3	건강관리	제약	메타바이오메드	8,440	20.1
	IT	IT부품	아이디에스	12,550	2733.0	건강관리	제약	대화제약	51,300	33.9
	IT	도매	소프트센우	20,650	20.8	건강관리	제약	안국약품	30,800	11.4
	IT	소프트웨어	아로마소프트	2,630	21.8	건강관리	의료기기	휴비츠	23,200	13.2
	IT	IT부품	다원시스	38,600	17.5	건강관리	도매	씨티씨바이오	26,750	18.6
	IT	컴퓨터서비스	한일네트웍스	2,525	8.4	건강관리	제약	하이텍팜	20,300	23.8
	IT	소프트웨어	누리텔레콤	13,850	13.5	건강관리	제약	화일약품	8,830	9.7
	IT	소프트웨어	라운시큐어	3,730	30.4	건강관리	의료기기	피제이전자	12,250	20.1
	IT	정보기기	디지털아이	3,510	3.4	건강관리	제약	오스코텍	5,380	4.1
	IT	사업지원	엠피씨	6,030	14.9	건강관리	제약	차바이오텍	19,150	12.0
	IT	의료기기	디지털옵틱	27,100	6.9	건강관리	연구개발	바이로메드	195,000	5.3
	소재	IT부품	에코프로	10,150	7.9	건강관리	제약	에스텍파마	33,900	66.2
	소재	금속	대호피앤씨우	2,310	37.9	건강관리	화학	네오팜	51,700	16.2
	소재	화학	한진피앤씨	3,965	24.3	건강관리	의료기기	바텍	30,550	3.6
	산업재	금속	삼강엠앤티	7,060	17.7	건강관리	의료기기	솔고바이오	851	25.1
	산업재	환경	인선이엔티	6,450	5.7	건강관리	제약	테라젠이텍스	12,800	19.6
	산업재	도매	서부T&D	27,900	6.5	건강관리	제약	삼천당제약	13,250	10.0
	산업재	기계장비	엔에스브이	4,250	4.0	건강관리	제약	삼아제약	21,800	12.1
	산업재	금속	케이피티	14,300	5.9	경기소비재	도매	메디프론	6,480	25.6
	건강관리	제약	JW중외신약	11,350	33.2	경기소비재	전문기술	이엠넷	7,580	11.0
	건강관리	제약	이수앱지스	12,800	32.0	경기소비재	인터넷	에스24	15,500	18.3
	건강관리	기계장비	일신바이오	2,235	17.6	필수소비재	도매	동서	39,000	11.9
	건강관리	제약	메디포스트	133,300	11.1	필수소비재	음식료담배	푸드웰	7,300	15.0
	건강관리	연구개발	바이오톡스텍	6,680	38.7	필수소비재	금속	태양	12,000	18.8
	건강관리	연구개발	진매트릭스	4,380	5.3	필수소비재	음식료담배	국순당	11,000	13.1

주) 상기 종목들은 7월 03일 장중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단기 유망종목: 에스원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에스원 (012750)	77,600 (-1.1)	78,500 (7/01)	- 가정용 보안 수요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분기에 시스템보안 가입자 성장세 지속 - 하반기에 건물관리, 상품판매, 정보보안 등 매출이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하반기 수익성 개선 예상 - 통합 보안업체로 도약, 시장 지배력 확대, 정책적 지원, 주택임대관리 사업 진출 등으로 장기 성장성과 수익성 강화 예상
대림산업 (000210)	84,800 (+3.4)	82,000 (7/01)	- 유화부문의 고마진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부문은 해외 저가공사 관련 부담 완화와 국내 분양시장 호황에 따른 수혜로 2분기 수익성 개선 예상 - 유화부문 핵심 자회사인 여천NCC, 건설 자회사인 삼호와 고려개발 등 주요 자회사들의 턴어라운드 예상
이수페타시스 (007660)	5,650 (-11.3)	6,370 (6/12)	- 네트워크장비용 MLB(Multi-Layer Board)생산 전문업체로 네트워크장비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지속 예상 - 중국 후난 법인의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수주 호조와 자회사 수익 개선으로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 하반기 중화권 신규 거래처 확보로 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진성티이씨 (036890)	6,680 (-4.3)	6,980 (6/12)	-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라(Caterpillar)향 매출은 장기공급계약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도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 또한 글로벌 메이저 굴삭기 업체들의 부품 아웃소싱 확대 추세 속에 Bobcat, Komatsu 등으로의 공급 물량 확대 지속 - 해외 고객사 비중 확대와 중국 법인의 턴어라운드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예상
KT&G (033780)	97,400 (-1.8)	95,700 (5/08)	- 가격인상으로 연초 감소했던 담배수요 및 시장 점유율의 점진적인 회복세와 ASP 개선 및 비용통제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예상 - 담배 수출 증가와 홍삼사업의 면세 실적 및 내수 수요 회복을 통한 실적 개선과 배당 매력도(금년 예상 DPS 3,700원)를 주목할 필요
백산 (035150)	5,640 (+13.4)	4,975 (4/28)	- LF쏘나타를 통해 진입에 성공한 시트용 합성피혁 부문 적용 모델 확대에 안정적인 성장 가능 전망 - 캐시카우인 신발부문은 경쟁사의 공장 해외 이전으로 인한 반사이익 등으로 전년대비 15% 이상 성장 예상 - 카시트 적용 모델 확대, 모바일 제품으로의 가족 케이스 공급 등 사업포트폴리오 확대를 감안할 때 추가 상승여력 상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대림산업, KT&G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3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KCC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5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KCC (002380)	480,000 (-14.7)	563,000 (3/31)	3,528	329	260	26,571	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자재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재료 매입액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2014년 기말 배당금을 6년만에 주당 8천원으로 1천원 상향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노력 - 안정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풍부한 자산가치를 감안할 때 재평가 가능성 상존 				
현대모비스 (012330)	205,500 (-17.1)	248,000 (2/2)	38,488	3,297	4,058	42,468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기아차의 친환경차 라인업 강화와 준중형모델들의 ADAS(운전보조장치) 채택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예상 - 현대/기아차의 누적 판매 대수 확대에 따른 AS부품 판매의 구조적 증가와 이익 방어력을 주목할 필요 - 견고한 펀더멘털 및 글로벌 peer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엔씨소프트 (036570)	208,000 (+15.2)	180,500 (1/2)	861	266	220	11,035	1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 가운데 기존 게임의 ARPU 상승과 길드워2 확장팩 출시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세 지속 예상 - 리니지1의 수익성 높은 신규 아이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리니지, 아이온, 블레이드앤소울의 추가 구성상품 선택을 통한 ARPU 상승 예상 - 2015년에는 블레이드앤소울 TCG, 패션스트리트, 팜야 등 모바일 게임 다수 출시 예정 				
LG하우시스 (108670)	145,500 (-8.8)	159,500 (1/2)	3,137	163	123	12,279	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산업의 회복으로 PVC 창호, 바닥재 등 건자재 건자재 매출 성장이 예상되며, 자동차, 가전관련 소재도 거래처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전망 - PVC, 가소제, MMA 등 화학제품 가격 하락으로 원재료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미국에 자동차 원단 공장 증설, B2C 건자재 확대(온라인 '지인몰' 오픈 등) 등 다각적 투자를 통한 장기 성장동력 강화 				
LG생활건강 (051900)	777,000 (+25.7)	618,000 (1/2)	5,083	600	427	25,640	3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에도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 매출호조와 방문판매 매출증가로 화장품 부문의 실적은 개선세 지속 예상 - 화장품 면세채널과 중국사업 정상화, 생활용품과 음료부문의 경쟁완화 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주목할 필요 				
SK하이닉스 (000660)	42,650 (-10.7)	47,750 (1/2)	19,340	6,100	5,180	7,120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 모바일, 그래픽 등 D램 수요 확대로 D램 가격 안정세 지속 - 애플 및 OEM 수요, 스마트폰 신제품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15년에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예상 - 영업활동을 통한 순현금 창출능력을 감안할 때 자사주 취득 및 주주배당을 통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 유효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LG생활건강, 엔씨소프트,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KCC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풍산(103140)

매수(유지)

목표가: 40,000원(유지)

종가(7/2): 26,300원

2Q15 Preview: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

■ 2분기 연결 영업이익 395억원으로 컨센서스 19% 상회 예상

2분기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예상된다.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395억원으로 우리 추정인 350억원을 12.9%, 컨센서스 332억원을 19.1%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2분기 재고평가손실과 metal loss 합계가 24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화 기준 동 가격이 우리 예상을 상회해 재고평가이익과 metal gain이 19억원이 계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손실을 예상했던 재고평가와 metal gain/loss가 이익으로 전환되면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 방산부분의 정상화도 눈 여겨 볼 대목

최근 방산 매출액이 정체를 보이며 성장성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높아졌다. 2014년에 방산 매출액이 정체되었고, 1분기 방산 매출액도 944억원으로 최근 3년 간 가장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산은 특성상 1분기가 최비수기이며 비경상적인 요인에 의해 매출액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지난 1분기가 이에 해당하며 지연된 매출액이 2분기에 발생하며 방산 매출액이 당초 예상인 1,800억원을 기록하며 정상화될 것이다. 이 경우 2분기 방산 매출액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다.

■ 부산공장 개발, 가치보다 과정에 주목할 시기

지난 6월 15일 풍산은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부산공장을 개발하는 MOU를 체결했다.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아 현재 단계에서 개발에 따른 이익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개발에 따른 이익이 1,000억원대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선부른 판단이다. 만약 그 정도의 개발 이익이 발생한다면 풍산이 이번 개발 계획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발 이익을 추정하기 보다는 개발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하반기에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승인이 될 경우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0,000원 유지

주가가 상승할 요인이 많다. 우선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고, 자산가치 상승 과정에 있으며, valuation도 매력적이다. 투자의견 '매수'와 2015년 BPS에 목표 PBR 1배를 적용한 목표주가 40,000원을 유지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3A	3,022	133	60	2,156	(2.0)	196	13.3	10.6	0.8	6.2	1.6
2014A	3,000	128	74	2,628	21.9	202	9.5	10.0	0.7	7.2	2.4
2015F	3,109	145	83	2,972	13.1	233	8.8	8.6	0.7	7.8	2.9
2016F	3,556	165	100	3,560	19.8	255	7.4	7.6	0.6	8.8	3.0
2017F	3,745	180	111	3,952	11.0	271	6.7	6.7	0.6	9.1	3.0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5년 7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아모레퍼시픽(090430)

매수(유지)

목표가: 500,000원(유지)

종가(7/2): 445,000원

2Q15 Preview: 실적 개선 지속, 높은 기대는 하회 전망

■ 2Q15 Preview: 해외 호조 속에 국내 성장 둔화, 컨센서스는 하회 전망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6%, 34% 증가한 1.12조원과 1,973억원으로 예상된다. 해외 사업 호조로 실적 개선은 이어질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2,270억원을 13% 하회할 전망이다. 국내 화장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7,444억원(+10% YoY)과 1,466억원(+18% YoY, 영업이익률 19.7%), 해외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750억원(+44% YoY)과 408억원(+122% YoY, 영업이익률 14.9%)으로 예상된다. 국내 생활용품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050억원(+3% YoY)과 100억원(+15.7% YoY, 영업이익률 9.5%)으로 예상된다.

■ 면세점 부진이 실적 하회의 주요인, 중국 현지 사업은 고성장

6월 국내 면세점 채널 부진으로 인해 면세점 채널 매출 증가세가 1분기 106% 증가에서 2분기 15% 증가로 둔화될 전망이다. 그외 전문점, 할인점, 방판, 백화점 등 기존 채널에서도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 반면, 해외 화장품은 전년대비 44%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 및 동남아 위주로 이니스프리, 설화수 등 고성장 브랜드군의 매장 확대와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2분기 위안화 강세(+6.9% YoY)도 긍정적이다. 6월 중국 내 'IOPE', '려' 브랜드 출시로 인해 해외 사업 수익성은 1분기보다는 하락하나 전년 대비해서는 5.2%p 개선이 예상된다.

■ 하반기 관전 포인트: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 회복과 중국 내 경쟁 강도

하반기 관전포인트는 첫째,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 회복이다. 면세점 채널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수가 6월 전년대비 감소, 3분기도 감소가 불가피하다.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 가정을 금년 +27%에서 +3%로 하향한다. 메르스 우려는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여 여행 수요는 8~9월부터 서서히 회복될 전망이다. 두번째, 중국 내 경쟁이다. 6월 중국 내 수입 화장품 관세 인하(5%→2%)와 맞물려 동사도 7월 15일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 가격 인하를 실시한다. 71개 품목(품목 수 기준 4%)에 대해 평균 7% 가격 인하이다. 매출 비중 10%를 가정 시 ASP 하락 폭은 0.7%p에 불과하다. 다만 최근 중국 시장에서 성장이 둔화되는 로레알, 에스티로더 등 기존 글로벌 강자들이 점유율 하락을 막기 위해 관세 인하를 빌미로 즉각적으로 가격 인하로 대응하는 움직임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 3분기 이후 실적 회복 전망

2015, 2016년 예상 순이익을 8% 하향한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00,000원(2016년 PER 45배, 역사적 고점 PER)은 유지한다. 국내 성장 둔화는 외부 악재로 펀더멘털 요인은 아니고 해외 사업은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글로벌 업체 중 중국 현지 사업 성장이 독보적이다. 단기적으로는 2~3분기 국내 부문 회복을 확인하면서 접근할 것을 권유한다. 2015, 2016년 PER이 51배, 40배에 달하는 반면 2년간 지속되었던 수익 추정 상향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3A	3,100	370	268	3,884	(0.9)	493	25.7	12.2	2.7	11.0	0.7
2014A	3,874	564	379	5,495	41.5	700	40.4	19.5	5.4	14.0	0.4
2015F	4,583	796	603	8,744	59.1	943	50.9	29.3	9.1	19.4	0.3
2016F	5,452	1,017	773	11,210	28.2	1,174	39.7	23.2	7.6	20.9	0.4
2017F	6,499	1,284	981	14,215	26.8	1,449	31.3	18.4	6.3	22.0	0.4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5년 7월 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송승연(seungyeon.song@truefriend.com) ☎ 02-3276-6273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6/26(금)	6/29(월)	6/30(화)	7/1(수)	7/2(목)	7/3(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90.26	2,060.49	2,074.20	2,097.89	2,107.33	2,104.41
	등락폭		5.20	-29.77	13.71	23.69	9.44	-2.92
	등락종목	상승(상한)	290(6)	133(7)	555(3)	605(10)	429(12)	389(7)
		하락(하한)	518(0)	702(0)	266(0)	221(0)	370(0)	420(0)
	ADR		94.21	89.64	97.28	104.17	105.94	108.84
	이격도	10 일	101.51	99.97	100.42	101.26	101.39	100.97
		20 일	101.31	99.96	100.64	101.70	102.08	101.85
	투자심리		70	70	80	80	80	70
	거래량	(백만 주)	493	504	392	472	565	414
	거래대금	(십억 원)	6,345	6,207	5,654	5,888	7,123	5,877
코스닥	코스닥지수		750.50	733.04	742.27	760.67	768.67	769.26
	등락폭		-3.16	-17.46	9.23	18.40	8.00	0.59
	등락종목	상승(상한)	290(6)	133(4)	555(4)	605(6)	429(5)	441(2)
		하락(하한)	518(0)	702(0)	266(0)	221(0)	370(0)	570(0)
	ADR		95.02	89.44	96.89	103.93	102.82	103.24
	이격도	10 일	102.65	99.89	100.66	102.57	103.04	102.58
		20 일	104.04	101.50	102.51	104.59	105.23	104.86
	투자심리		70	70	80	80	80	70
	거래량	(백만 주)	606	477	463	561	717	655
	거래대금	(십억 원)	4,932	4,093	4,154	4,421	4,912	4,855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3,852.5	1,035.0	980.6	197.5	123.5	206.8	65.9	19.0	367.719	44.4
	매도	3,750.5	1,033.7	1,073.6	185.8	120.2	316.3	91.8	29.7	329.7	54.8
	순매수	102.1	1.4	-93.1	11.7	3.4	-109.5	-25.9	-10.7	38.0	-10.4
	7월 누계	25.2	120.4	-102.0	44.2	-19.7	-112.5	-3.9	-15.0	4.9	-43.7
	15년 누계	309.0	8,417.3	-8,953.7	-5,304.6	-1,128.2	-5,839.9	-562.0	-583.5	4,464.5	227.4
코스닥	매수	4,390.1	226.1	232.5	58.4	27.6	58.6	15.0	7.0	66.0	42.2
	매도	4,391.5	238.1	213.4	56.5	21.9	51.0	25.1	6.7	52.2	48.0
	순매수	-1.4	-12.0	19.1	1.9	5.7	7.6	-10.1	0.3	13.8	-5.7
	7월 누계	-106.5	-32.6	189.3	52.9	27.4	71.5	7.7	6.6	23.1	-50.1
	15년 누계	615.1	-336.1	889.7	-137.2	327.5	484.3	26.3	-134.5	323.3	-1,168.7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유통업	6,625	전기,전자	-37,085
섬유,의복	1,938	서비스업	-21,191
건설업	664	보험	-9,553
삼성물산	12,360	삼성전자	-14,979
OCI	9,861	SK하이닉스	-12,661
SK케미칼	4,152	코리안리	-8,479
삼양홀딩스	4,117	SK이노베이션	-7,510
KT&G	3,984	삼성에스디에스	-7,176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제조업	17,372	운수창고	-15,395
음식료품	6,510	전기,전자	-7,253
철강및금속	6,373	운수장비	-3,718
제일모직	13,070	현대글로벌비스	-13,887
아모레G	6,362	삼성물산	-10,279
OCI	5,990	삼성전자	-9,689
오리온	5,207	S-Oil	-7,313
한국전력	4,543	대한항공	-5,264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2,200	유통업	-3,383
서비스업	2,129	보험	-2,923
제조업	509	금융업	-2,659
유한양행	888	TIGER 중국소비테마	-2,660
SK이노베이션	861	TIGER 경기방어	-2,423
아모레퍼시픽	762	SK네트웍스	-2,391
코오롱인더	549	동부화재	-2,023
KODEX 인버스	527	현대건설	-1,784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11,593	전기,전자	-17,448
제조업	11,311	유통업	-10,861
화학	10,523	운수창고	-2,847
OCI	14,853	삼성전자	-11,832
제일모직	10,256	삼성물산	-9,360
GKL	3,073	현대글로벌비스	-4,210
아모레G	2,747	한국전력	-2,376
오리온	2,284	대한유화	-2,354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제조업	22,110	전기,전자	-75,641
화학	16,449	운수창고	-24,571
건설업	8,481	보험	-19,145
OCI	41,489	삼성전자	-36,493
오리온	16,215	현대글로벌비스	-24,269
제일모직	12,535	SK하이닉스	-21,567
KT&G	10,220	SK이노베이션	-13,227
현대산업	9,154	S-Oil	-12,750
아모레G	9,075	NAVER	-11,697
한세실업	8,313	CJ CGV	-11,160
삼성테크윈	8,012	코리안리	-11,037
KODEX 인버스	8,000	LG생활건강	-10,027
롯데케미칼	6,429	삼성물산	-9,856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보험	25,157	철강및금속	-17,703
전기,전자	20,729	유통업	-14,322
서비스업	10,783	제조업	-10,477
SK하이닉스	15,629	오리온	-19,075
현대글로벌비스	13,478	OCI	-13,324
하나금융지주	12,364	고려아연	-11,549
SK이노베이션	10,537	KB금융	-11,222
현대모비스	10,403	현대위아	-10,267
삼성생명	10,387	호텔신라	-8,257
현대차	10,093	아모레G	-8,124
코리안리	9,447	KT&G	-7,066
LG생활건강	9,118	신한지주	-5,991
삼성SDI	7,710	한샘	-5,52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소매	2,305	방송서비스	-2,059
인터넷	2,099	제약	-1,294
음식료,담배	1,579	운송장비,부품	-1,141
서부T&D	2,334	CJ오쇼핑	-1,997
다음카카오	2,049	씨젠	-1,558
이오테크닉스	1,974	에스텍파마	-1,523
안국약품	1,405	홈캐스트	-1,317
삼성엘엔에스	1,128	셀트리온	-1,210

연 기 금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6,471	IT부품	-1,587
오락,문화	4,505	금융서비스	-1,157
방송서비스	1,482	통신장비	-855
다음카카오	6,290	씨젠	-4,039
파라다이스	4,545	크루셀텍	-1,894
메디포스트	2,719	매일유업	-1,198
셀트리온	2,097	삼천당제약	-1,134
이지바이오	1,907	CJ E&M	-818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541	소매	-3,465
소프트웨어	461	금융서비스	-355
오락,문화	371	반도체	-198
씨젠	476	서부T&D	-3,465
다음카카오	272	디에이치피코리아	-355
매일유업	238	바이오랜드	-273
휴비츠	210	리노공업	-239
한글과컴퓨터	207	바이로메드	-197

보 험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4,036	의료,정밀기기	-2,380
음식료,담배	1,656	제약	-2,003
IT부품	1,311	전문기술	-929
파라다이스	3,953	메디톡스	-2,403
이지바이오	1,679	인바디	-2,158
다음카카오	1,145	CJ E&M	-885
보령메디앙스	811	디에이치피코리아	-777
씨젠	576	오스템임플란트	-744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12,965	제약	-6,301
오락,문화	10,818	의료,정밀기기	-4,126
음식료,담배	5,872	전문기술	-2,921
다음카카오	12,558	셀트리온	-5,563
파라다이스	10,349	코오롱생명과학	-4,212
메디포스트	5,865	CJ E&M	-3,789
이지바이오	5,158	인바디	-2,868
안국약품	3,871	삼천당제약	-2,177
보령메디앙스	2,308	디에이치피코리아	-2,042
모두투어	1,993	메디톡스	-2,014
한국사이버결제	1,702	유니테스트	-1,983
하이텍팜	1,668	로만손	-1,661
차바이오텍	1,668	셀바이오텍	-1,598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4,360	오락,문화	-7,396
소프트웨어	3,026	연구,개발	-3,362
출판,매체복제	2,777	디지털컨텐츠	-3,032
씨젠	6,508	파라다이스	-5,902
다음카카오	3,523	메디톡스	-5,649
보령메디앙스	3,416	바이로메드	-3,570
에스엠	2,336	컴투스	-3,096
홈캐스트	2,198	성우하이텍	-2,511
에스텍파마	1,972	안국약품	-1,890
코나아이	1,944	원익IPS	-1,619
오스템임플란트	1,863	테라젠이텍스	-1,487
중앙백신	1,468	메디포스트	-1,330
뷰웍스	1,396	에이블씨엔씨	-1,237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신세계	29 일	태광산업	34 일
세아베스틸	19 일	넥센타이어	26 일
아모레G	16 일	LG생활건강	12 일
영풍	14 일	삼성전자	10 일
한국셀석유	13 일	모토닉	10 일
도레이케미칼	13 일	아모레퍼시픽	10 일
현대산업	11 일	LG	9 일
LF	9 일	일양약품	9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솔브레인	14 일	동서	12 일
성광벤드	9 일	휴맥스	8 일
다음카카오	8 일	OCI머티리얼즈	5 일
매일유업	5 일	STS반도체	5 일
다산네트웍스	5 일	포스코애포텍	4 일
메디포스트	5 일	포스코 ICT	4 일
동진세미켐	4 일	네패스	4 일
차바이오텍	4 일	한국토지신탁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OCI	100,715	아모레퍼시픽	131,459
KODEX 레버리지	70,876	삼성전자	99,138
오리온	70,354	현대차	75,764
아모레G	30,697	LG생활건강	69,366
한솔케미칼	28,843	하나금융지주	66,723
현대산업	23,888	POSCO	46,973
한미약품	23,341	SK이노베이션	42,599
신세계	23,073	삼성생명	34,847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다음카카오	130,624	다음카카오	8,488
삼성엘앤에스	8,566	동서	8,478
보령메디앙스	8,377	오스템임플란트	7,908
선데이토즈	7,873	녹십자셀	5,918
리홈채	7,548	STS반도체	4,559
코스온	6,821	인트론바이오	4,546
위메이드	6,270	블루콤	4,462
파라다이스	5,734	원익IPS	4,162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전기가스업	4,048	7,585	11,633
제일모직	12,535	1,109	13,644
한국전력	4,282	5,752	10,034
메리츠종금증권	4,527	4,098	8,625
KODEX 인버스	8,000	82	8,082
대림산업	283	4,471	4,754
한화케미칼	883	2,872	3,755
GS	3,532	52	3,584
한국가스공사	1,682	1,508	3,190
종근당홀딩스	2,412	472	2,883
하이트진로	1,804	993	2,796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인터넷	12,965	4,360	17,325
소프트웨어	4,486	3,026	7,512
화학	1,831	1,624	3,455
다음카카오	12,558	3,523	16,081
보령메디앙스	2,308	3,416	5,725
코나아이	858	1,944	2,802
모두투어	1,993	623	2,616
이오테크닉스	1,355	513	1,868
젬백스테크놀로지	1,454	232	1,686
씨티씨바이오	1,366	164	1,530
중앙백신	16	1,468	1,484
삼성엘앤에스	1,409	51	1,461
OCI머티리얼즈	503	922	1,425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디와이	45 일	현대중공업	19 일
LG디스플레이	20 일	아세아	18 일
현대차	16 일	오리온	15 일
LS	13 일	LF	15 일
하나금융지주	11 일	두산중공업	12 일
GS건설	10 일	현대산업	11 일
현대제철	9 일	서연	9 일
에스엘	9 일	한라비스테온공조	9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평화정공	11 일	한국정밀기계	14 일
원익IPS	9 일	덕산하이메탈	10 일
KH바텍	9 일	에이테크솔루션	7 일
아트라스BX	4 일	파라다이스	5 일
GS홈쇼핑	4 일	셀트리온	4 일
성우하이텍	3 일	성광벤드	3 일
네패스	3 일	성우하이텍	3 일
메가스터디	3 일	유진기업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93,986	오리온	-103,637
현대모비스	-68,792	SK하이닉스	-55,237
현대글로비스	-67,390	OCI	-36,364
CJ제일제당	-47,496	신세계	-36,008
한미사이언스	-42,476	현대위아	-28,292
현대차	-40,889	고려아연	-27,407
하나금융지주	-39,081	호텔신라	-25,633
SK이노베이션	-35,380	다우기술	-24,606

KOSDAQ			
기	관	외	국 인
코오롱생명과학	-12,258	파라다이스	-35,741
바이오랜드	-6,681	삼성엘엔에스	-10,785
녹십자셀	-6,096	코나아이	-5,708
원익IPS	-5,526	인바디	-4,091
인트론바이오	-4,126	다원시스	-3,925
한국토지신탁	-4,045	NICE평가정보	-3,691
에스텍파마	-3,574	리홈쿠첸	-3,678
팬앤티테인먼트	-3,519	삼천리자전거	-3,666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유통업	-11,795	-14,322	-26,117
금융업	-9,563	-2,473	-12,037
기계	-3,031	-1,620	-4,651
KB금융	-4,040	-11,222	-15,262
현대위아	-4,172	-10,267	-14,439
호텔신라	-4,208	-8,257	-12,465
고려아연	-705	-11,549	-12,254
삼성물산	-9,856	-1,299	-11,155
LG이노텍	-7,063	-2,794	-9,857
현대건설	-6,753	-1,612	-8,365
삼성에스디에스	-4,749	-1,419	-6,169
삼성전자우	-3,144	-1,098	-4,242
SK텔레콤	-298	-3,940	-4,238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송장비,부품	-2,878	-2,411	-5,289
금융서비스	-2,311	-2,163	-4,474
연구,개발	-580	-3,362	-3,942
메디톡스	-2,014	-5,649	-7,663
셀트리온	-5,563	-918	-6,481
코오롱생명과학	-4,212	-600	-4,812
CJ E&M	-3,789	-674	-4,463
바이로메드	-336	-3,570	-3,906
디에이치피코리아	-2,042	-1,216	-3,257
인바디	-2,868	-335	-3,203
원익IPS	-1,228	-1,619	-2,848
성우하이텍	-282	-2,511	-2,793
유니테스트	-1,983	-230	-2,214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현대차	191	25,834	
삼성중공업	1,260	24,524	
현대중공업	109	12,679	
삼성전자	7	8,941	
현대엘리베이	109	8,723	
POSCO	36	8,210	
호텔신라	64	7,971	
한미약품	14	7,37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다음카카오	91	12,673	
파라다이스	179	4,305	
셀트리온	19	1,584	
인피니트헬스케어	104	1,339	
삼성엘엔에스	12	1,307	
성우하이텍	127	1,179	
바이넥스	55	1,172	
이오테크닉스	11	1,155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150	4,091,771	
현대중공업	9,443	1,090,640	
삼성중공업	56,334	1,090,071	
호텔신라	7,828	986,281	
제일모직	5,196	935,360	
SK하이닉스	21,252	894,728	
아모레퍼시픽	1,995	887,660	
삼성에스디에스	2,791	731,17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0,905	1,728,849	
다음카카오	6,905	954,994	
CJ E&M	434	551,342	
위메이드	1,497	246,144	
바이로메드	1,014	197,644	
파라다이스	7,529	180,685	
컴투스	1,201	167,619	
삼성엘엔에스	1,229	131,506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 O S P I			
순 증		순 감	
화학	1,416	통신업	-3,428
건설업	1,264	운수창고	-2,688
운수장비	1,160	보험	-1,017
삼성중공업	2,445	KODEX 200	-6,151
한화케미칼	1,986	현대상선	-3,433
호텔신라	1,407	LG유플러스	-3,220
대우건설	1,190	슈넬생명과학	-1,276
메리츠증권	1,073	SK텔레콤	-1,158
흥아해운	991	SK네트웍스	-1,121
KT	950	대우조선해양	-962
LG전자	834	SK하이닉스	-824
두산인프라코어	759	삼성물산	-816
현대건설	683	현대차	-77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순 증		순 감	
오락,문화	1,403	운송장비,부품	-596
금융	545	미분류	-533
사업지원	340	전문기술	-497
파라다이스	1,174	현진소재	-563
이트론	613	에스앤씨엔진그룹	-427
한국토지신탁	601	시그네틱스	-393
엠피씨	400	유진기업	-387
한진피앤씨	272	SK브로드밴드	-387
파트론	247	피에스텍	-226
에스에이엠티	238	동서	-223
씨젠	230	해덕파워웨이	-213
서울반도체	209	성우하이텍	-204
원익IPS	200	인터파크홀딩스	-194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6/29(월)	7/1(화)	7/2(수)	7/3(목)	7/4(금)
외국인	8,417.3	120.4	-43.3	-112.5	-51.3	6.4	112.7	1.4
기관계	-8,953.7	-102.0	4.5	23.0	83.5	73.6	-82.5	-93.1
(투신)	-5,839.9	-112.5	7.2	36.6	83.1	-21.7	18.7	-109.5
(연기금)	4,979.0	13.4	189.3	125.1	50.8	12.7	-39.0	39.7
(은행)	-583.5	-15.0	-63.0	-18.3	-29.7	0.6	-4.9	-10.7
(보험)	-1,128.2	-19.7	-41.4	-24.0	2.2	-14.3	-8.7	3.4
개인	309.0	25.2	87.1	92.9	-31.0	-74.8	-2.0	102.1
기타	227.4	-43.7	-48.2	-3.4	-1.2	-5.1	-28.2	-10.4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2	2013	2014	6/26(금)	6/29(월)	7/1(화)	7/2(수)	7/3(목)
KOSPI	1,997.1	2,011.3	1,915.6	2,090.3	2,060.5	2,074.2	2,097.9	2,107.3
고객예탁금	18,014.3	14,211.8	15,842.5	21,573.4	22,785.7	21,665.8	23,025.7	22,264.4
(증감액)	334.1	-3,802.5	1,630.7	-234.3	1,212.3	-1,119.9	1,359.9	-761.3
(회전율)	26.7	29.9	34.0	52.3	45.2	45.3	44.8	54.1
실질예탁금증감	-13,998.7	-10,125.7	-2,121.1	-316.6	1,072.4	-1,103.3	1,429.6	-825.6
신용잔고(KOSPI)	2,202.9	2,289.7	2,533.3	3,648.4	3,671.4	3,684.5	3,648.6	3,647.4
신용잔고(KOSDAQ)	1,709.5	1,893.1	2,537.4	3,875.2	3,902.3	3,911.9	3,874.0	3,882.4
미수금	1,241.0	929.0	1,176.0	139.3	131.9	133.2	168.7	147.4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6/26(금)	6/29(월)	7/1(화)	7/2(수)	7/3(목)
전체 주식형	76,543	-4,835	-45	217	223	106	5	-50
(ex. ETF)		-2,932	56	124	176	71	2	54
국내 주식형	59,247	-5,222	-38	181	184	125	18	-57
(ex. ETF)		-3,319	63	88	137	90	15	48
해외 주식형	17,297	387	-7	36	39	-20	-13	7
(ex. ETF)		387	-7	36	39	-20	-13	7
주식 혼합형	9,383	-1,386	-44	-53	8	7	-10	-34
채권 혼합형	28,988	1,303	259	-82	89	109	202	57
채권형	83,171	9,093	-77	-116	576	526	-9	-69
MMF	111,096	27,925	5,476	2,254	-362	-2,914	-170	5,64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6/29(월)	7/1(화)	7/2(수)	7/3(목)	7/4(금)
한 국	7,755	107	-39	-100	-46	6	100	1
대 만	5,262	-56	-247	-230	39	46	-102	-
인 도	6,199	15	-167	-105	-78	15	-	-
인도네시아	315	-1	-12	-29	18	-16	15	-
태 국	-596	-129	-127	0	2	-	-129	-
남아공	3,079	132	630	101	397	54	79	-
필리핀	391	-14	0	3	11	-9	-6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4년말	6/26(금)	6/29(월)	7/1(화)	7/2(수)	7/3(목)	7/4(금)
회사채 (AA-)	2.43	2.03	2.01	2.01	2.02	2.04	2.04
회사채 (BBB-)	8.26	7.94	7.92	7.92	7.93	7.96	7.95
국고채 (3년)	2.10	1.82	1.79	1.79	1.80	1.83	1.83
국고채 (5년)	2.28	2.10	2.07	2.07	2.09	2.13	2.13
국고채 (10년)	2.60	2.50	2.45	2.45	2.47	2.53	2.52
미 국채 (10년)	2.20	2.47	2.32	2.35	2.42	2.38	-
일 국채 (10년)	0.33	0.47	0.45	0.47	0.48	0.53	-
원/달러	1,099.30	1,116.90	1,125.30	1,125.30	1,117.50	1,125.00	1,123.00
원/엔	920.30	901.89	916.52	912.40	909.13	914.19	912.56
엔/달러	119.45	123.84	122.78	122.26	122.92	123.06	123.06
달러/유로	1.22	1.12	1.12	1.12	1.11	1.11	1.11
DDR3 1Gb (1333MHz)	1.34	1.18	1.17	1.17	1.17	1.17	-
DDR3 2Gb (1333MHz)	2.21	1.52	1.52	1.51	1.51	1.51	-
NAND Flash 16Gb (MLC)	2.18	1.72	1.72	1.71	1.71	1.71	-
CRB 지수	233.24	225.46	224.16	227.75	224.64	225.13	-
LME 지수	2,907.6	2,623.4	2,616.1	2,600.7	2,628.0	2,630.2	-
BDI	782	823	813	800	794	794	-
유가 (WTI, 달러/배럴)	53.61	59.63	58.33	59.47	56.96	56.93	-
금 (달러/온스)	1,185.50	1,170.50	1,176.00	1,171.00	1,168.00	1,165.25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9	30	1	2	3
유럽>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재논의 (27일) 日> 5월 예비 광공업생산 MoM (-2.2%, -0.8%, 1.2%) 독일> 6월 예비 소비자물가지수 YoY (0.3%, 0.5%, 0.7%)	유럽> 그리스 구제금융 만료 5월 실업률 (11.1%, 11.1%, 11.1%) 韓> 5월 광공업생산 YoY (-2.8%, -1.9%, -2.7%) 독일> 6월 실업률 (6.4%, 6.4%, 6.4%)	美> Bullard 연준이사 연설 6월 ADP취업자변동(천명) (237, 218, 201) 6월 ISM 제조업지수 (53.5, 53.2, 52.8) 韓> 6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0.7%, 0.7%, 0.5%) 6월 수출 YoY (-1.8%, -2.0%, -10.9%) 中> 6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50.2, 50.4, 50.2) 6월 HSBC 제조업 PMI (49.4, 49.6, 49.6) 유럽> 6월 마킷 제조업 PMI (52.5, 52.5, 52.5)	美> 6월 비농업부문고용자수 변동(천명) (233, 223, 280) 6월 실업률 (5.3%, 5.4%, 5.5%) 5월 제조업수주 (-1.0%, -0.5%, -0.4%) 日> 6월 본원통화 YoY (34.2%, n/a, 35.6%)	유럽> 5월 소매판매 MoM (n/a, 0.1%, 0.7%)
6	7	8	9	10
유럽> 그리스 국민투표(5일) 독일> 5월 공장수주 MoM (n/a, -0.1%, 1.4%)	독일> 5월 산업생산 MoM (n/a, 0.1%, 0.9%)	日> 5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n/a, 1,501.7, 1,326.4)	韓> 금통위 금리 결정 (n/a, 1.50%, 1.50%) 美> 6월 FOMC 의사록 공개 Williams 연준이사 연설 日> 5월 기계수주 MoM (n/a, -3.7%, 3.8%) 中> 6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1.3%, 1.2%)	中> 6월 M2 통화공급 YoY (~15일) (n/a, 10.9%, 10.8%) 6월 신규대출 (~15일, 십억 위안) (n/a, 1,000, 900.8)
13	14	15	16	17
日> 5월 광공업생산 MoM 中> 6월 수출 YoY 6월 수입 YoY	日> BOJ 통화정책회의 美> 6월 소매판매 추정 MoM 유럽> 5월 산업생산 MoM 독일> 6월 최종 소비자물가지수 YoY ZEW 서베이 예상	中> 2분기 GDP YoY 6월 소매판매 YoY 6월 광공업생산 YoY 美> 6월 광공업생산 MoM 韓> 6월 실업률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美> 연준, 베이지북 발간	美> 6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6월 주택착공건수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